

숨은그림찾기 < 97 >



찾아보세요 사람 옆 얼굴, 펜촉, 은행잎, 나비, 다리미, 양주잔, 비늘, 담배피이프, A자

밤에 하는 노동

사무실에서 우리 부장과 타 부서 부장이 큰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부장 친구가 말했다. "밤에 하는 그거는 노동이야, 그야말로 아내를 위한 봉사지!" 우리 부장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 그건 그야말로 중노동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린 잠으로 희생적이어야 가정을 위해서 말이야." 부장은 앞에서 조용히 있던 젊은 사원에게 물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아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게 노동이면 니들이 하겠냐? 날 시키지..."



지난주 정답

양주잔, 새집, 다리미, 은행잎, 고추, 송사리, 화살, 병뚜개, 대접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장희진(광주시 서구 화정동) 김재연(광주시 서구 풍암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냉전의 상징' 베를린 장벽 붕괴

베를린 장벽 붕괴는 냉전의 종말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베를린 장벽은 동베를린 시민들의 서베를린 탈출을 막는, 독일인들을 갈라놓은 벽(壁)이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독일은 미·영·프·소 등 연합군의 분할 통치를 받게 됐지만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독일은 동서로 갈라지게 됐다. 이후 분단이 고착화하면서 서독 사회를 열망하는 동독인들의 탈출이 잇따랐다. 정권 수립 이후 서독으로 넘어간 주민만 260만명. 특히 대학교수·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숙련된 기술자들이 많았다. 자칫 정권 자체가 무너질 위기 상황. 위기감을 느낀 소련은 동독 정부에 출입 봉쇄를 요구했고 1961년 8월 13일 새벽 2시30분 베를린을 동서로 가르는 철책이 만들어졌다. 잠에서 깨어난 베를린 시민들은 43km에 달하는 철조망에 경악했다.

독일 분단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이후 철조망은 높이 3.6m, 길이 155km에 이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바뀌었다. 동서 베를린 간 이동은 전면 금지됐고 베를린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높아졌다.

서베를린을 왕래하며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하곤 했던 동베를린 주민들은 한 순간에 자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다.

이 상황에서 1963년 6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가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라는 연설을 남기면서 서베를린 방어를 위한 미국 공약을 확인시켰다.

이후 1963년 12월 동서독 정부의 허가 아래 최초의 이산 가족 상봉이 이뤄지면서 화해 분위기가 시작됐고 이를 계기로 양측간에 설치된 철의 장막은 차근차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1985년부터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선언하면서 이



동독의 국경 개방조치가 발표된 뒤 동·서독인들이 베를린 장벽의 브란덴부르크 문 위에 올라 환호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에 영향을 받은 동유럽 공산국가들은 서서히 독자노선을 시도했다. 헝가리가 1989년 국경선을 개방하면서 동독주민들이 헝가리로 탈출, 서독으로 들어갔고 동독 안에서도 자유와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번져갔다.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부는 마침내 국경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베를린 장벽의 제거를 선언한 것. 귀를 의심하던 국민들은 국경으로 몰려들어 장벽을 넘었다. 동서독 시민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당시 언론은 "국경 전면 개방 조치가 이뤄진 뒤 하루동안 5만명이 넘는 동베를린 시민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갔고 1주일도 안돼 최소 300만 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88. 지난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이 가수가 마침내 가요계에 복귀합니다. (주)에당엔터테인먼트는 최근 "15주년 기념 음반을 29일 발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데뷔해 '난 알아요'를 시작으로 '컴백홀'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면서 1990년대 대중 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서태지 ②조용필 ③남진 ④나훈아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7일(음 9월 28일 乙酉)

- 36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지 말라. 48년생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라. 60년생 희망의 진행은 계속 되니 준비하라. 72년생 지난 문서는 버리고 새 문서를 열는다. 84년생 좋은 음식은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득재한다. 행운의 숫자: 14, 38
37년생 외형적 매력에 실속 재검점 하라. 49년생 고행이 우려되니 인내하면 오히려 재물이 들어온다. 61년생 서로서로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다. 73년생 내일을 위해서 인내함이 좋으리라. 85년생 일에 강박을 만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03, 45
38년생 생각하지 않은 협조자가 재래하니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 50년생 도둑이 예상되니 문닫음을 잘하라. 62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74년생 오늘은 눈을 감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01, 35
39년생 전체 속에 실리도 없으니 실망 말고 진행하라. 51년생 과한 친절과 서두르는 사람의 사기조짐을 경계해야 하리라. 63년생 외형은 가능한 방법으로 실리를 찾아서 축소해야 좋으리라. 75년생 오늘은 즐거우리라. 행운의 숫자: 04, 44
40년생 중인의 협조가 새로운 격이요 매사에 성공하는 형상이다. 52년생 자신 있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요. 64년생 부자는 마투라. 76년생 불연이던 애인과 이별도. 행운의 숫자: 21, 25
41년생 부부간의 의견다툼이 있다. 53년생 오랜만에 좋은 협조자를 얻고 기쁘다. 65년생 관과 재, 재와 성과가 우러른다. 77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손이 줄어 든다. 행운의 숫자: 05, 26
42년생 직업과 재물이 불리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 주의가 요망된다. 54년생 부부사이에 화신이 필요하다. 66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지루하다. 78년생 흥과 복이 교차하고 중중하니 기도와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17, 29
43년생 희기적인 자기노선에서 주변의 협조까지 얻으니 금상첨화다. 55년생 현 위치에서 깊은 마음으로 자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67년생 절대적 실리를 찾아야 한다. 79년생 오늘은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12, 30
44년생 신기를 당하는 수도 있다. 56년생 처음부터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 쪽으로 모색하라. 68년생 있는 것도 없는 듯이 조심하라. 80년생 천국이던 대는 불만하고 상처만 남으니 복을 나누어라. 행운의 숫자: 11, 34
45년생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형상이다. 57년생 집집원 활동이 확실한 결과로 보일 수 있게 된다. 69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내용이다. 81년생 중정을 잃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라. 행운의 숫자: 09, 36
46년생 모든 일에 신중 하라. 58년생 문서를 쥐고 있는 형상으로 제사나 순조롭다. 70년생 큰 계획으로 임해라. 82년생 수확을 얻으리라. 82년생 모든 일에 경이로운 진취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08, 37
47년생 미려시 신중함 체면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살펴보라. 59년생 용이 변하여 길이 된다. 71년생 타인의 중상모략 기만을 만발 우려가 많으니 조심이 절실하다. 83년생 많은 조성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07, 40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우눈은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문의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광주시 바둑협회 최강배 바둑대회 기세 올리는 白 9보(126~143) 최강부 결승전 白 심재욱 6단 黑 선계성 6단. 계속해서 치고빠지는 심재욱 6단의 교란작전에 말려들어 선계성 6단이 편지를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흑 ▲로 끊어진 것도 엇박자로 보인다. 확 ▲로 끊어 이곳을 끊기는 했으나 백이 126으로 지키고 나자 뽀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흑 127로

바둑소식 주형욱, SK가스배 윤혁 제압. 주형욱 4단이 6일 서울 스카이 바둑 TV스튜디오에서 열린 SK가스배 신예프로10결전 순위결정전에서 윤혁 5단을 126수 만에 백 백계로 꺾었다. 주형욱 4단은 이 승리로 9위를 차지했다. SK가스배 신예프로10결전은 모두 12명의 신예기사들이 A, B 2개 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벌인 후, 각조 우승자가 결승에 올라 타이틀의 주인공을 가린다. 우승상금은 1천만원(준우승 700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

굿모닝 잉글리쉬 <1028> What a wonderful night! 아, 멋진 밤이네요. A: What a wonderful night! We had a great dinner, don't you think so? B: Yes, it was a great dinner, and I ate too much. what do you want to do now? A: Let's walk home, and we can enjoy the moonlight. B: That's a good idea. A: 아, 멋진 밤이네요. 저녁식사,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B: 그럼요, 정말 굉장한 저녁식사였어요. 저는 너무 배부른데, 당신은 무엇을 하실 거예요? A: 집으로 걸어갑시다. 달빛을 음미하면서 말입니다. B: 그게 좋지요. * What a wonderful night! = What a beautiful! night! = What a great night! * That's a good idea. = It's a good idea. = This is a good idea. * moonlight : 달빛 * ate too much : 너무 많이 먹었다.

오하오우 니혼고 <1028> 病氣(びょうき)になっちゃうよ。병이 날 것 같아 A:こんなに毎日(まいにち)残業(ざんぎょう)続(つ)きじゃ、体(からだ)がもちませんね。 B:うん。今日(きょう)も残業(ざんぎょう)しろって言(い)われたら、病氣(びょうき)になっちゃうよ。 A: サウナに入(はい)って、疲(つか)れを取(と)りたいですね。行(い)きませんか。 B: うん。皆(みんな)が行(い)くなら行(い)ってもいいけど。 A: 이렇게 매일 잔업을 하면 몸이 남아나지 않아요. B: 응, 오늘도 잔업하라고 하면 병이 날 것 같아. A: 사우나라도 가서 피곤을 풀고 싶어요. 안 갈래요? B: 응, 모두 간다면 가도 좋겠지만- 残業(ざんぎょう)続(つ)き: 계속되는 잔업 疲(つか)れを取(と)る: 피곤을 앓다 行(い)くなら: 간다면 病氣(びょうき): 병

니하오 쑹구위 <5> 你家有几口人? 가족이 몇 명이에요? A: 你家有几口人? Nǐ jiā yǒu jǐ kǒu rén? B: 我家有五口人。 Wǒ jiā yǒu wǔ kǒu rén. A: 都有谁? Dōu yǒu shuí? B: 爸爸, 妈妈, 哥哥, 弟弟和我。 Bāba, māma, gēge, dìdì hé wǒ. A: 가족이 몇 명이에요? B: 다섯 명입니다. A: 누가 누가 있어요? B: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그리고 저요. 凡 [fán] 誰 凡 [kǒu] 가족을 세는 양사 谁 [shuí] 누구

한자 이야기 <645> 四君子(사군자) 녀사, 임금군, 아들자 사군자(四君子)에서 '군자(君子)'는 덕행이 높고 학문이 뛰어나 사람을 말하며, '사군자'는 '군자'와 같은 네 가지 사물을 의미한다. 즉 문인화의 중요 소재가 되는 매화(梅花), 난초(蘭草), 국화(菊花), 대나무(竹)이다. 매화는 '아치고절(雅致高節)'이라고 하여 우아한 풍치와 고상한 절개를 기리고, 난초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이라고 하여 겉은 부드럽고 안은 강인한 성품을 기린다. 국화는 '오상고절(傲霜孤節)'이라고 하여 서리에도 굴하지 않는 고고한 절개를 기리고, 대나무는 '세한고절(歲寒孤節)'이라고 하여 추위 속에서도 오히려 고고한 절개를 기린다.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인고(忍苦)하고 봄의 화사함을 전하는 빙자옥질(冰姿玉質)로 표현되고, 난초는 가는 잎새에 맺힌 우로(雨露)의 청초함을 통하여 세속의 미진(微塵)을 떨쳐낸 결백을 표현한다. 국화는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만물이 낙목한천(落木寒天)하는 가운데 홀로 생명을 피어내는 강인함을 표현한다면, 대나무는 세상의 어려움을 모두 견디내리고도 변하지 않는 절개를 표현한다. 사군자는 이처럼 있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뜻'을 형상화하는 문인화(文人畵)의 대표적 소재였던 것이다.